

주부신행담

이웃교

"가부좌를 틀고 참선한지 서너시간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스님은 선방에 들어와 '이웃교'를 내놓으라며 대뜸 호통을 쳤다"

어 린시절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난 자주 할머니를 찾아 집에 다녀다. 팔로 가는 20리 길이 좋아 매번 할머니를 따라 나섰던 나는 그때 추억을 영영 잊을 수 없다.

팔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는 부엌 광문을 걸어 잠그시고 목욕을 하신 후에 한쪽을 곱게 차려 입으셨다. 그리고는 가득 채운 쌀자루를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 머리에 이고, 내 손에는 양초를 쥐어주셨다.

진달래 꽃이 만발한 그날도 할머니와 난 절에 갔다.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어 무슨 죄를 부릴까 공리하던 차에 나는 할머니 물레 진달래 일을 따 주머니에 한 움큼 넣고는 지루할 때마다 하나의 깨내 먹기 시작했다. 집에 소꿉 놀이하면서 친구들과 진달래꽃을 따 먹었는데 단맛이 나는게 좋았다.

진달래 꽃잎을 조금씩 들어 먹으며 할머니를 따라 가는데 점점 할머니와 멀어지는 것 같더니 눈이 감기고 잠이 와서 주저앉고 말았다. 한참만에 눈을 떠 보니 아침인지, 저녁인지 희미한 촛불 하나뿐인 어두운 방에 할머니와 비구니 스님 한분이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진달래 꽃잎에 마

취가 돼 버렸던 모양이다.

그 후 나는 더이상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닐 수 없었다. 어머니와도 마찬가지로였다.

학교 공부에 바빴던 나도 한참동안 절에 가는 걸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술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예비고사를 치르고 본고사를

פת말이 보였다.

다 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몸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더니 다리에 힘이 빠져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눈에선 인인모를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러더니 휘둥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내 앞에는 스님 한분이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때 나는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돌아오는 동안 내 마음은 신기하게도 알 수 없는 흥만으로 가득차고, 안정되어 있었다.

자신감을 얻은 나는 마침내 미술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 미술교사로써 교편을 잡았다.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신행생활도, 작품활동도 제대로

개인전을 열었다. 화가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전시회를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나를 보여줄 게 없다는 허탈감으로 난 괴로웠다. 또다른 세계를 찾아 나서고 싶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참선하러 다니시는 부산 안국사와 인연이 돼 다니게 되었다. 큰스님에게 '이웃교'라는 화두를 받아 선방에 앉았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돼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을까?

새벽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한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헛기름이 났다. 간신히 몸을 추스려 안국사 스님께 사정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이 뭐꼬?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뭐꼬?"라며 알

"이웃교,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뭐꼬" 7일 정진끝에 법견성 범명을 받았다

1주일 정도 앞둔 날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미술대학에 가는 걸 못마땅해 하시며 반대를 하셨는데 나는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시달리는게 불안했다.

문득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가까운 곳에 비구니스님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이 생기자 무작정 그곳을 찾아가다. 수원의 겨울 날씨는 매서웠다. 눈보라를 맞으며 삼시간에 발목까지 차오른 눈을 헤쳐가며 한참을 기다리니 좁은 길 위로 그곳의

하지 못한 채 그냥저냥 하루하루를 보냈다. 작품을 하고 싶은 생각에 매일 새벽과 식후하며 붓을 잡아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러다가 나는 그런 나의 생활 속에서 '인고자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 모습 속에서 '불두(佛頭)'라는 작품의 아이덴티를 얻게 돼 1995년 6월 '불두'를 주제로 첫번째

아래라 하셨다. 참으로 알 수 없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다.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든지 서너시간은 촉촉이 지났을지언정 시간이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져 오는 경험을 했다. '좀 더 가까이 가보지'라는 욕심이 나 6일째 되는 날에는 할아기 도에 들어갔다. 밤이 깊을수록 머리는 청명해졌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었다. 안국사 스님이 선방에 들어오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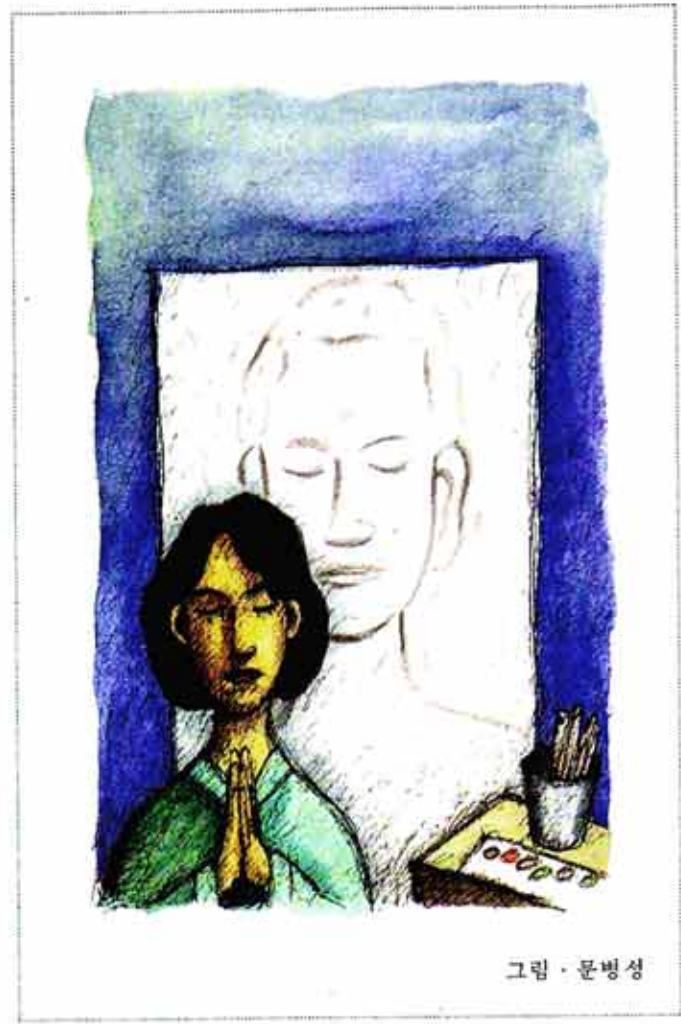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대뜸 호통을 치시더니 "이것이 뭐꼬. 이렇게 내 놓아라"라고 하셨다. 그 때 내 몸은 후끈한 열기로 달아 올랐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큰스님은 나에게 '법견성'이라는 범명을 지어주셨다.

그날 이후 나는 '영원한 자유'라는 명제로 두번째 전시회를 가졌고, '생활 불교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하루라도 할리 남편을 불교로 이끌어 나란히 선방에 다니며 드반으로서 남은 생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박광희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오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 재료 : ASH(느릅 잎목)
- 규격 : 가로 720 x 세로 340 x 높이 320(단위 mm)
- 가격 : 8만 5천원

■ 구입문의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권 佛子 반야 반지 권

불자의 자긍심을 세웁니다.

-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품명도
장권(장권),정사유(정사유),정어(정어),정업(정업),정명(정명),정정진(정정진),정심(정심),정정(정정)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志力),의력(意志力),행력(行力),정력(定力),지력(持力),세력(勢力),덕력(德力),행력(行力),색력(色力),신력(神力),재력(財力),심력(心力),선력(善力),홍력(弘力),정마력(捷魔力)

품명: 반야반지
재료: 금, 은, 티타늄(18K, 14K, 1.5mm)
가격: 18K-W 130,000, 14K-W 120,000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쇼핑몰 여름 선물 특선

부다피아 티셔츠

불교 전통상살문양 손수건

●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상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 재료: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기도포

■ 크기: 84cm x 39cm
■ 가격: ₩1,600

다포

■ 크기: 50cm x 39cm
■ 가격: ₩800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여 연꽃 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은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 재료: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주문방법

- 전화 : 02-732-1522/737-8881
- 팩스 : 02-737-0697
- 인터넷 : http://mall.buddhapia.co.kr

현상공덕항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항" 기도와 함께 파워 올린 항에서 부처님이 나무십니다.

저장보살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현상공덕항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최대를 가지고 있으며, 항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 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항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항은 외형과 겉모습을 증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입니다. 현상공덕항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항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가격: ₩8,000(3개 ₩21,000)
- 재즈원: 순천통도 판매원: 을 · 부다피아